

350PPM 캠페인



350 PPM
Together we can create something so big A2~A4

350PPM 캠페인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50ppm 이하로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라온아띠 필리핀팀은 6월 3일~5일 필리핀 산파블로 시티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라온아띠 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A2~A4에서 계속

중간보고

6월 22일, 라온아띠 필리핀팀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 보고가 진행됐다. 아띠들과 평가단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활동하면서 생긴 고민들에 대해서 개인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A5~A6에서 계속

· 중간보고
'중간' 아닌 중간보고 A5~A6

ALS준비를 시작하다.



6월의 마지막 주는 앞으로의 ALS 클래스를 준비하는 주였다. 아띠들은 각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ALS 클래스를 위한 장소를 섭외하고, 대상자들을 만나 등록하고, 맵핑을 통해 대상자들의 수준을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다.
A8에서 계속

ALS
준비체조 시이~작! A8

바공포옥 초등학교에 기부금 전달

6월 22일, 드디어 기부금이 바공포옥 초등학교에 전달되었다. 기부금은 석수골 작은 도서관과 석수골의 주민들,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모인 것이다.

아띠들은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바공포옥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미팅을 하고, 가구점에 가서 책장을 골랐으며 마을에 있는 시립도서관도 방문하였다.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책을 일부 구입하였다.

A7에서 계속



바공포옥 작은 도서관 만들기
책! 책! 책! 책 읽자 애들아! A7

CULTURE

김시연 단원의 완벽한 하루 A9~A10
태양은 뜬다 A10~A11
신기자의 심층취재! A12

LIFE

생일을 맞이한 송정원 어린이의 일기
A13~A14

부록

6월 틴틴이 우리는... A15
A20

라온아띠 7기 필리핀팀 6월 일정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 350 캠페인 준비	*350 캠페인 준비
3	4	5	6	7	8	9
* 발랄록 꽃 심기	*350 캠페인 준비	*350 캠페인 * 영어 수업	* 보고서 작성 * 영어 수업	*보고서 작성 * 영어 수업	* 광주 YMCA 현장 방문	*Politic Event(정치인의 밤)
10	11	12	13	14	15	16
* 정원이 생일 * 타이타이 푼포 방문	휴식	* 독립기념일 행사 * 산타크루잔	* 중간보고 준비 *환경교사일 꾸미기	*중간보고 준비 * Mommy Kristy 시댁 곁 훈기념일	*중간보고 준비	* 중간보고 준비 * 케이트 언니집 방문
17	18	19	20	21	22	23
* 중간보고 준비	* 중간보고 준비	*중간보고 준비	*중간보고 준비	* 중간보고	* 중간보고 *기부금 전달	*마미와 리플렉션 미팅!
24	25	26	27	28	29	30
* 조펠 아저씨 가게 방문	* 산토리노 방문	*환경교사일 꾸미기 *PH가거점/시립도서관/SM몰 방문	* 가와드칼리나 방문 * 바공포옥 초등 학교 방문	* 산그레고리오 방문	*마미와 미팅 * 바나나 칩 만들기	* 지역신문 인터뷰 *티처제인과 피딩 관련 미팅 * 영어 수업



Together we can create something so big

350ppm 캠페인, 그 다양한 활동들

5월 21일~6월 2일 : 350PPM룸 꾸미기 및 캠페인 준비

필리핀에서는 6월 학기가 시작하기 전 일주일간, 브리가다 에스쿠엘라 라는 학교 정비기간을 갖는다. 학생,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이 앞으로 사용할 학교를 청소하는 일을 함께 한다.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는 버려진 교실 하나를 라온 아띠에게 제공했다. 그래서 아띠들은 학교 정비기간을 이용해 이 방을 350ppm 룸으로 명명하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미화를 시작한다. 이 방을 앞으로 라온아띠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교실로 쓸 예정이며, 이곳에서 곧 환경 교육도 이뤄질 계획이다.

트라이시클 외부에 부착할 350 사인을 종이 쇼핑백을 재

부착할 정보물 인쇄, 각종 교육자료 제작 및 퍼레이드 때 쓰일 피켓 제작을 했다. 또한 직접 만든 로고로 스티커와 티셔츠를 제작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를 학교 및 YMCA Board of Directors 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미 크리스티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멤버들은 각자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환경수칙을 정했다.

- 의주: 양치 컵 사용
- 시연: 이면지 재활용
- 강호: 환경경찰
- 정원: 장보러갈 때 걷기
- 화영: 전선 뽑기



350ppm룸



350사인 제작

6월 3일 : 발록에 꽃 심기

발록 꽃 심기 캠페인은 6월 5일 캠페인 날 보다 조금 빨리 진행됐다. 발록의 플래팅은 우리 캠페인에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먼저 우리가 꽃을 심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2. 발록은 산파블로 시티 내 쓰레기가 모이는 매립지다. 우리가 발록에 심은 꽃은 삼파기타, 필리핀의 국화로 향이 무척 진하고 좋다. 또한 함께 심은 산세베리아는 독소를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힘이 있다. 꽃 심기를 통해 발록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이 발록 꽃 심기를 모티브로 우리만의 로고도 제작했다. 삼파기타 꽃 속에서 지구가 꽃피는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로, 꽃을 피우는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듯이 환경을 지키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캠페인에는 우리 기대보다 적은 발록 커뮤니티 사람들이 참여했다. 몇몇 단원들은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동안 발록 사람들은 쓰레기 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어쩌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캠페인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일 것이다. 그러나 또 일부의 단원들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니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의견을 냈다.

뒷면에 계속



밭록 플랜팅



We cannot do this alone
TOGETHER, WE CAN CREATE
SOMETHING SO BIG

6월 5일: 많은 사람들의 참여

디존고등학교

약 80여명의 고등학생들과 디존 고등학교에서 시작해 YMCA에서 끝나는 약 20분 가량의 퍼레이드를 가졌다. 퍼레이드 전으로는 간단한 오프닝 행사를 가졌으며,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환경 약속 종이에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학교 게시판에 자신들이 적

은 약속을 붙여놓았다. 물론 학생들이 350캠페인의 의미를 100%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할 퍼레이드와 캠페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잘 따라주어서 성공적이었던 캠페인으로 단원들은 평가하고 있다.



350PPM 캠페인에 대한 설명

바공포옥 초등학교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환경 약속을 적어 커다란 게시판에 붙이고, 학생들과 350 모양을 만드는 캠페인을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35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과정에 흥미를 느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

었다. 이후에는 한국에서 기부 받은 에코 백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은, 350 캠페인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알린 다기보다는 에코백을 나눠주는 데에 더 치중한 것 같았다.



퍼레이드



환경 약속 붙이기

뒷면에 계속

카노사컬리지

카노사컬리지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350ppm에 대해 알렸다. 카노사는 총 3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규모가 큰 학교로, 우리는 이 학교를 통해 펀드레이징을 하기를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티커를 구매해서 자신들의 공책 앞에 붙이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줄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의 회의 마지막에 들어가 350ppm의 의미와 환경캠페인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우리가 펀드레이징 한 돈은 바공포옥 350ppm 교실에 투자되고, 또 다른 환경에 관한 프로젝트에 쓰일 것이라는 것도 설명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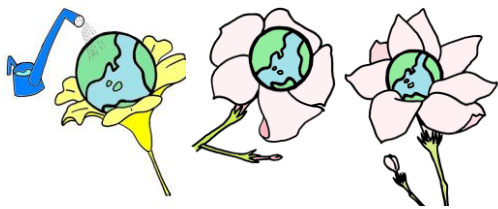
에게 이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고 학생들이 환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활동이었다.

이번 350ppm 캠페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번 캠페인은 우리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 학교들의 협력, 학생들과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었더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캠페인이었다. 이처럼 환경 캠페인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김시연 단원
<siyeon.kim.kr@gmail.com>

바공포옥 초등학교 환경 교실 꾸미기 기금 마련



스티커 1장에 350원 3장에 1000원!

스티커 및 티셔츠의 디자인은 지구가 꽃피는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입니다. 꽃을 피우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듯이 지구를 지키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판매의 기금은 바공포옥 초등학교의 환경 교실을 꾸미고 환경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티셔츠 1장에 10000원!



문의: 라온아띠 필리핀팀

'중간' 아닌 중간보고

네 달째 라온아띠 생활, 우리는 이제껏 어떻게 보내왔을까?

사실 우리는 기운이 좀 빠져 있었다. 말이 '중간'이지 다섯 달 활동 중 세달 반 이상을 한 후 평가하는 '중간'이 어디 있던 말인가! 5월 말로 계획되어 있던 평가단이 미루고 미뤄져 우리의 중간평가는 6월 21경이 돼서야 할 수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짝 긴장한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 데 없고 그저 6월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구나~하며 여유롭게 평가단을 맞이할 수 있었다. 평가단은 우리를 심사해주셨던 이충재 실장님과 전도연 성대모사를 너무 잘 흉내 낸 나머지 듣는 사람도 오그라들게 했던 아산의 이희남 간사님께서 수고해주셨다.

할 건 다 했다.

여유롭게 준비했던 타인지 각각 팀원들은 진심으로 중간(?)점검을 하기 시작했다. 왜 필리핀 팀인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운 것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라온아띠가 파견된 나라는 각각마다 특색이 있게 잘 짜여져 있다. 우리가 찾은 필리핀 팀의 특색은 '커뮤니티'였다. 3월 처음, '우리는 왜 6기가 말했던 교육이나 피딩 활동이 아닌 기관이나 다른 조직 방문만 하고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었다. 이것이 우리가 필리핀



문화와 이곳 산파블로 시티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개인적으로 강호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다짐했다. 정원이는 팀 내 역할과 대인관계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려고 했다. 결론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움직이는 것이 내 역할이었고 나의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소통이라고 배웠다. 화영이는 이번 중간을 계기로 관계의 중요성을 느꼈다. '친구'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친구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시연이는

이제껏 해왔던 활동에 항상 반성만 했었는데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가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의주는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거나 새로운 분야에 더 배우고 싶은 열기가 달아올랐다.

필리핀 팀의 목표는 '자발적 행동'이다. 자발성을 가지고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중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과연 얼마큼의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에 임했을까? 명확한 수치로 표현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정말 '현지인'이 될 순 없겠지만 단순한 관광객 혹은 방문자 정도가 아닌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노력과 배움과 나눔, 이것들이 한데 영켜 이곳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것 같다.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친구, 참 좋은 말이다. 친구라는 건 일방적이 아닌 서로 그렇게 느껴야 가능한 사이니까.

중간보고는 정.말 우리에게 큰 피로를 안겨다주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찾아야 할 것들을 스스로 찾게 해 주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6월 마무리를 짓는 지금, 우리의 활동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앞으로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서히 프로그램을 정리하려고 한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활동에 있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행동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왔었다. 앞으로도 그 태도는 변치 않을 것이고 일방적이 아닌 쌍방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신의주 단원
<korea16ft@naver.com>



알마 언니네 미용실

지면광고입니다.

중간보고 전 머리를 자르고 싶었던 이강호 단원은 '알마 언니네 미용실'을 찾았고 만족을 표시했다.

이강호 단원: 제 큰 머리를 가릴 수 있도록 머리를 잘라 주신 알마 누나 동생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싼 가격, 교통비를 들이면서 멀리 있는 미용실을 갈 필요가 없다. 바로 옆집에 '알마 언니네 미용실'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당신의 큰 머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문의: 알마 언니



책! 책! 책! 책 읽자 애들이!

석수골 작은 도서관의 기부금이 바공포옥 초등학교에 전달되다!

우리가 훈련 받았던 안산 YMCA는 석수골 작은 도서관과 연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일주일간의 국내 훈련을 받았었다. 이 곳에서는 우리가 파견될 산파블로 지역 내에 있는 바공포옥 초등학교에 책을 기부하고 싶어했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를 바랐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산파블로 시티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훈련기간 동안 석수골 도서관 관장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산파블로시티에서 책을 구입하기를 부탁하셨고 우리는 이 곳에서 기부금이 오기를 기다렸다.



<석수골 도서관>

6월 22일 중간평가단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기부된 기금은 석수골의 주민들과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마련된 것이다. 석수골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한권의 책을 읽으면 500~1000원 정도의 기금이 모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줌으로써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책을 읽도록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필리핀 친구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달식 사진>

바공포옥 교장선생님과 회의 자리를 가진 후 우리는 학교 도서관을 꾸밀 준비를 시작했다.

이 기회를 통해 마을에 있는 시립 도서관도 방문해 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시설이 좋아 보여서 놀랐고 시설에 비해 책이 너무 없어 두 번 놀랐다. 필리핀의 책 가격은 이 곳의 물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책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시립 도서관에서조차 책이 기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접하기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책을 조금씩 구입하기 시작했다. 소중한 기금으로 구입하는 것이기에 신중의 신중을 가하게 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라온아띠 7기를 시작으로 미래의

라온아띠들이 만들어 갈 이 도서관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배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



<PH 가구점 방문>



<마을시립 도서관 방문>



<SM몰 방문 - 책 구입>

준비체조 시이~작!

아띠들, 본격적인 ALS 수업 준비를 시작하다!

ALS 클래스 등록 & 맵핑

6월의 마지막 주는 앞으로의 ALS 클래스를 준비하는 주였습니다. ALS는 Alternative Learning System의 준말로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같은 대안교육입니다. 아띠들은 각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ALS 클래스를 위한 장소를 섭외하고, 대상자들을 만나 등록하고, 맵핑(ALS 등록을 위한 간단한 테스트)을 통해 대상자들의 수준을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라온아띠 활동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ALS 클래스 활동을 위해 아띠들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2012. 6. 27 (수) 가와드칼링아



가와드칼링아에서는 바랑가이 홀(마을 회관)에서 ALS 대상자들을 상대로 등록과 맵핑이 있었습니다. 아띠들에게는 앞으로의 ALS 프로그램 활동에서 만날 대상자들을 미리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와드칼링아에서는 15명의 대상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전에 활동했던 발록 캠퍼스는 마을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ALS 대상자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덜어주고자 마을 가까이 위치한 초등학교를 섭외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바랑가이 체어맨(우리나라의 마을 이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띠들은 산 토니뇨로 향했습니다.

바랑가이 체어맨께서는 매우 호의적으로 아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주셨고, 산 토니뇨의 ALS 클래스 또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2012. 6. 28 (목), 7. 1 (일) 산 그레고리오

28일 산 그레고리오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는 바랑가이 홀에 ALS에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랑가이 체어맨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요일에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을 한 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7월 1일, 아띠들은 다시 산 그레고리오를 방문했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ALS 클래스의 등록일을 홍보하였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있던 아기 엄마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ALS 클래스. 비록 우리들의 활동 막바지에 시작해 긴 시간 동안 활동하진 못하지만, 대상자들이 흥미를 갖고 꾸준히 참여

2012. 6. 25 (월) 산 토니뇨



할 수 있도록 즐거운 활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띠들은 7월의 활동 목표인 사회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송정원단원

<kaizen20@cyworld.co.kr>

김시연 단원의 완벽한 하루

필리핀의 독립기념행사와 산타크루잔을 체험하다

오전

6월 12일은 필리핀의 독립 기념일이었다. 아띠들은 대형 쇼핑몰인 S.M에 초대받아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했다. 필리핀은 오랜 세월 스페인, 일본, 미국 등의 식민 지배를 겪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독립기념일이 더 의미있게 느껴졌다. 아띠들은 필리핀 전통 의상과 한국 전통의상을 차려 입고 독립기념일 행사장에 들어섰다. 필리핀 의상을 입음으로써 그들의 독립기념일을 존중했고, 한국 전통의상을 통해서 필리핀과 한국의 화합과 우정을 보여주고자 했다.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긴 춤, 군악대, 학생들의 축하 공연, 미스 필리핀에어의 연설 등 다양한 행사가 지나갔고 남은 것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114마리의 비둘기를 하늘에 날리는 행사였다. 이 114마리의 비둘기는 바로 필리핀이 독립을 한지 114년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초대받

오후

아띠들이 참가한 산타 크루잔 (Santa Cruzan)이라는 행사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퍼레이드이다. 카톨릭에서 5월은 꽃의 달이고, 이 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파트너와 함께 마을을 행진하게 된다. 칼라완에서 진행된 산타 크루잔은 비록 5월에 이뤄진 것은



은 손님들 손에 한 마리씩 비둘기가 쥐어지고, 펄떡거리는 비둘기를 겁에 질려 붙들고 날리는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 우리 아띠들 중 하나가 비둘기 한 마리를 놓쳐서 비둘기는 훨훨 날아 가버리고 만다. 남은 비둘기는 113마리. 결국 필리핀 해방 114주년을 기념하며 113마리의 비둘기를 날려버린다. 그게 누구 단원 때 문이라고 굳이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다. 이모단원이라고만 해두자.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종교적인 행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입는 아름다운 드레스에 여성단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몇 주 전부터 평생 숨기고 싶었던 바디사이즈 측정을 하는 굴욕을 겪으면서도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독립 기념일 행사의 마지막은 "Pinoy Ako"라는 노래로 장식됐는데, 이 노래는 "나는 필리핀 사람이다"라는 노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필리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독립 기념일 행사는 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신 크리스가 이번 산타 크루잔을 주관했기에, 직접 드레스를 골라주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연결시켜주는 등 수고해주셨다. 무려 3시간에 걸친 두꺼운 화장과 헤어가 끝나고, 처음 입어보는 드레스를 입고 15cm 힐을 신고 거울을 본 순간. 뒷면에 계속

이것은 누구인가. 우리 여성단원들은 80년대 미스코리아로 완벽 빙의 했다.

이제 남녀 한 쌍으로 파트너를 정해서 마을을 한 바퀴 행진할 때, 15cm 되는 힐을 신고 길을 걸으려니 곧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고통이 엄습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이냐며, 아름답다고 환호를 해주는 덕분에 모든 고통을 참으며 3시간 동안 행진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는 축제 같은 분위기에 우리 단원들도 같이 흥겨워졌다. 너무 발이 아픈 나머지 맨발로 걷기도 하고, 파트너가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혼자 씩씩거리며 걷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다시는 경험하기 힘든 즐거운 시간이었다.



김시연 단원
<siyeon.kim.kr@gmail.com>

태양은 뜬다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한 조펫 아저씨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우리는 지난 국내훈련 때 안산 다문화 특구 지역에서 1주일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민·관 예선 한국에서 일하며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또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일하신 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2일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산타크루잔에서 전통 퍼레이드를 했을 때 우리들의 옷과 메이크업을 지원해주신 조펫 아저씨를 만났고, 그 이후 6월 24일 아저씨 동네에서 축제를 하는데 초대받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조펫 아저씨는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삶을 사셨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일하시면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되어 강제추방 당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자를 받아 돌아오셨고,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도 당하셨고, 한국 필리핀 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뺑소니로 1년간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셨다. 얘기를 들으면서 힘든 한국 생활이 그려졌다. 특히 당시 MBC 느낌표에서 방영한 "아시아, 아시아"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병원생활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많은 한국 분들에게 도움을 받



기도 하였다.

조펫 아저씨의 한국에서의 삶을 한 마디로 간추리자면 "태양은 뜬다" 였다. 당시 기사를 인용하자면 "한국에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일을 했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은 웬만큼 다 겪어 보았을 것 같아

뒷면에 계속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뻘히 알면서 한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답해 버린 것이다.”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서로 잘해주면 되는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한국인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어요.”

조펫 아저씨의 “태양은 뜬다” 라는 단 5글자로 답한 말이 각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다사다난한 삶을 사셨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찾았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사회 역시 긍정적인, 부정적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태양은 뜬다” 라는 말처럼 희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 속에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그 후 우리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나라 옛날에 독일 간호사, 중동 건축사업에 파견되었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사정부터, 굳이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체류자를 도와야 하는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게 아닌지, 그럼 법과 인권 사이에서 어떤 것이 불법체류자를 위하는 일인지



,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우리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까지는 많은 고민과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본인 스스로 불법체류자는 법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한국사회에 남아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나쁜 일들을 만들 수 있고,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대해 그런 신분이 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과 인권 사이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을 하였다. 물론 인권이 보장되는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런 상황은 그것이 잘 안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그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월급을 부당하게 못 받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서 한국어교육봉사 요청이 들어왔지만 팀 내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데 할 수 없다는 의견과 그렇다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꼭 해야 된다는 의견과 요청이 들어온 봉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조율을 못해 실제로 한국어교육봉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가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훈련도 받고 현지에 왔지만 아직도 사회현실을 잘 알지 못해 의사결정을 확실히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사회현실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가질 수 있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분들이 고국에서 어떻게 살고 그들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지 직접 만나고 얘기하면서 우리 역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그 현실을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강호단원

<akang18@naver.com>

신 기자의 심층취재!

필리핀의 부패한 정치문화

정원이의 생일 전야제였다. 현지 코디네이터인 마미 크리스티가 오늘은 YMCA 체육관에 연예인이 온다고 했다.

오늘은 지역 정부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벌인 쇼잉의 날이었다. 현지용어론 거버너의 밤이라고 한다. 영화도 상영하고 연예인도 오고 지역 주민들의 흥을 돋구면서 그 지역 정부에 관한 이해를 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일명 '라구나 지역 수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오더니 연설을 하다가 돈을 한 뭉텅이 꺼내 든 것이었다.

타갈로그어로 연설 할 때는 주민들이 관심을 덜 보이더니 돈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앉아있던 주민들도 일어나서 그 분 주위로 몰려들었다. 일종의 퀴즈 쇼였는데 얼핏 봐선 누구나 알 만한 상식을 퀴즈로 내고 돈을 주는 형식이었다. 지역 정부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에서 관리가 돈을 뿌리다니..

1.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사례?

그렇다. 한 땀 그랬다. 근 500년 간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아 온 필리핀은 독립 이후 헌법에 기초한 정부, 삼권분립과 권리장전이 잘 지켜지는 듯 보였다. 실제로도 아시아의 민주화에 강한 바람

을 불어 일으켰었다. 그러나 초기 마르코스 정부 때 부터 형식적으로만 민주적인 정부였었다. 필리핀의 정치/경제는 탈 중앙집권적이고 가문 중심으로 돌아갔고 이러한 권력의 집중현상은 경제발전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 미국 로비스트와 이 사건

미국에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로비스트가 있다. 선거철도 아닌 이 때, 시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합당하냐?

현지 코디네이터와 이사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 선거를 앞둔 물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정부가 벌인 축제(?)에 온 연예인들은 주민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돈을 뿌렸다. 말로는 거버너의 밤이라고 해서 지역 정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리라 하지만 '이해'의 모습은 영상과 연설이 고작이었다. 90% 이상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농도 짙은 성적 희롱과 엔터테인이었다. 그 자리엔 아이들도 있었는데 몇몇의 아이들은 고위 관리가 퀴즈를 낼 때 옆에서 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지역 정부의 이해는 정책의 이해가 아닌 주민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로잡는데 있었던 것이었다.

3. 필리핀 정치와 민주화

필리핀의 선거는 정단 간 정책 차이가 아닌 가문을 중심으로 한 유력 인물의 인기 등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하는 문화와 연임제가 가능한 가문 중심적인 필리핀 정치가 이러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한 때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라고 불릴 만큼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다. 초기 부패한 마르코스 정부를 끌어내린 것은 선거 결과에 불복한 민중들이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필리핀 민주화의 양면성 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기는 강하지만 가족정치라는 한계는 민주화의 발전에 방해요인이 된다. 또 가족집단이 강한 사회에서 '유권자들만 잘 구슬리면 권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런 모순의 악순환이 톱니바퀴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가 쉽사리 뿌리 채 뽑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패'하면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앞둔 지금, 정치에 관해 불신이 만연한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선거로 인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필리핀 국민들의 희망은 본 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신의주 단원

<korea16ft@naver.com>

생일을 맞이한 송정원 어린이의 일기

필리핀에서 맞은 생일과 타이타이폭포 소풍

2012년 6월 10일 맑음



그 날이 왔다. 팀 내에서 유일하게 맞이하는 생일이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된다. 전 날 정치 이벤트와 보고서 마무리 작업으로 새벽 늦게 잤더니 5시에 일어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거울을 본다. 엄마가 생일 선물로 해주신 머리 염색이 아직도 내겐 어색하다. 씻고 있으려니 밖에서 날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급하게 뛰어나가 문을 열고 인사를 나눈다. 기다리는 엄마를 위해 급하게 준비하고 성당으로 함께 나선다. 이 곳 필리핀 사람들은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이면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성당 앞에서 아이들이 팔고 있는 사람 모양의 초를 사서 앞으로의 소망을 빌며 불을 붙인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와 시장으로 가 소풍 때 먹을 음식 재료들을 산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에서 잡다한 소리가 나고 있다. 살짝 훑쳐보니 형이 요리를 하고 있는 듯하다. 모르는 척 몰래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얼마 후, 밥 먹으라는 소리에 기대감을 가지고 식탁으로 나간다. 세상에... 상상 이상이다. 미역국에 볶은 김치가 눈에 보인다. 타지생활 4년(타국 생활 3개월)만에 처음으로 생일에 미역국을 먹고 있는 나에게 팀원들이 케이크와 생일 선물(가방)까지 준다. 생일을 축하해

주는 고마운 팀원들을 위해 열심히 미역국을 먹는다. 미역국을 모두 흡입(?)하려 했지만 시간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남기고 YMCA로 나선다.

소풍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타이타이 폭포로 향한다. 소풍을 가는 차 안은 역시 즐겁다. 어제 늦게 잔 탓인지 몸이 무겁지만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간다. 우리가 도착한 타이타이 폭포는 울창한 숲과 폭포소리로 우리를 반겨준다. 바비큐를 준비하고 흐르는 물에 만든 간이 냉장고에 음료수를 담가둔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폭포를 구경한 후 점심식사를 한다. 수저가 넉넉지 않기에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제는 맨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더 맛있다. 밥도 든든히 먹었고...이제 물속에 몸을 담가볼까...우와...너무도 차갑다. 물속에서 얼마 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달달 떨어진다. 이제는 폭포 쪽으로 올라가봐야지. 몸을 담그는데 물 높이가 가슴까지 온다. 주변을 둘러보니 팀원들은 들어올 생각도 하질 않는다. 폭포에 왔는데 폭포까지는 가봐야지! 하고 폭포 앞 바위까지 헤엄쳐 가는데...이럴 수가...발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 게다가 발에 쥐가 나기 시작한다. 입으로 물이 들어온다. 있는 힘껏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먼저 가있던 버니에게 손을 내민다. 돌이 미끄러워서 겨우겨우 올라갔다. 하마터면 생일날이 제삿날이 될 뻔 했다. 힘겹게 숨을 고르고 다시 헤엄쳐 돌아왔는데...왜 사람들이 웃고 있지? 내 모습이 웃겼다고 한다. 뭔가 부끄러우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든다.

힘이 쭉 빠진 몸을 이끌고 옷을 갈아입은 뒤, 차에 올라 잠시 잠을 청한다. 정지한 차. 도착했나? 어디지? 둘러보니 시장이다. 신발이 유명한 릴리우에서 쇼핑을 한다. 그 동안 사고 싶었던 구두를 나에게 선물하고 YMCA로 돌아온다. 비록 피곤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이었다.

“바나나 만들면 우리한테 반하나?”



발록의 livelihood

하루에 200페소 (6000원)정도에 판매된다고 한다



직접 만들어 보다

만드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발록 쓰레기 산에서 쓰레기를 수집하여 생체를 이어나가는 그들에게 바나나 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6월 틈틈이 우리는...

광주 YMCA 방문, 케이트 언니네 방문, 지역신문인터뷰

6월 8일: 광주 YMCA의 현장 방문



와 한국인이다! 광주 YMCA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 활동 프로그램 현장방문을 했다. 아띠들은 오랜만에 보는 한국인에 한국말 하는 것조차 어색해 했다. 함께 필리핀 음식을 먹고 근처의 바공포옥 초등학교, 디존 고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또한 아띠들은 산파블로 시티에서 활동했던 감상을 나누고 방문단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6월 16일: 케이트 언니네 방문



지난 기부 활동이 인연이 되어 알게 된 케이트 언니. 케이트 언니는 조카의 생일파티에 아띠들을 초대해주셨다. 사실 그분의 목적은 아띠들과 친해지고 싶으셨던 것. 자신의 방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띠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6월 30일: 지역신문 인터뷰



지역 마을 신문 기자분께서 아띠들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며 자신의 리조트에 초대해주셨다. 인터뷰를 예상하고 갔지만 인터뷰는 없었고 대신 기자분께서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시며 여성 단원 중 한 사람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으셨다. 리조트라 했던 곳은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없는 곳이었으니 라온아띠 단원들도 마미크리스티도 당황했다.

이화영 단원

<ehwayoung@nate.com>

지면광고입니다.

알마 언니네 김치



필리핀에서 공수한
신선한 배추,
당근,
피클을 이용해 만든 신선한 김치!

필리핀에서 맛보는 특별한 김치의 맛!
(조미료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신선해요!)

문의: 알마 언니

너 잘 살고 있냐?

안 올 것만 같은 떠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은 달이었다. 지금까지 나를 보자면 굳이 "잘했다, 못했다"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은 잘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잘 살고 있는 건 무엇일까? 한국에서도 잘 살고 오겠다고 무작정 오긴 왔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다. 내 생각에는 잘 살면 적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게다가 즐거운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려 하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있을까? 우리는 행복할까?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내가 잘 살고 있고 행복하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라온아띠 멤버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 속의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이 곳에 온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왔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모두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잘 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건데 과연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못 내리겠다.

나는 이 곳에서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팀원들, 두 엄

마와 친구들, 아이들, 마을 주민들, 관계자 분들 모두가 나를 느끼는 만큼 나는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지금 행복 한지.. 남은 시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나 역시 특별한 사랑을 모두가 느끼도록 표현할 것이다.



이강호 단원

前 먹이사슬 최하위
現 공식 짜증 받아 인형
現 축축한 베이비 발바닥 소유자
現 배 까기 전문

야, 이화영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처럼 힘들지 않았고 생각처럼 많은 일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귀찮아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팀원들에게 짜증이 날 때도 있었다.

중간 평가를 준비하면서 '나는 라온아띠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무어라 답하기가 어려웠다. 난 솔직히 라온아띠 활동 전과 활동 후 바뀐 것은 없다. 난 처음부터 나를 바꾸

고자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 물론 중간보고를 준비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뽐낼 수 는 있었다.

과연 내가 지난 4개월동안 이 커뮤니티에 무언가 도움이 될만한 활동을 했는지. 비싼 비행기 값과 숙식비를 받아가면서 내가 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남은 일에 집중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이화영 단원

前 필리핀팀 사오정 담당
現 제씨 아~제씨 아저씨 담당
現 ☺쟁이, ☺장이, ☺꾼, ☺아저씨
現 호러 분위기 메이커

DJ 토니의 [달도 빛나는 밤에]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더욱 값진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과연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활동에 집중하며 일하고 있다가도 가족처럼 서로 생각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 오릅니다.

- 김광석 [서른 즈음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연기처럼 /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 비어가는 내 가슴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 내가 떠나 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그리고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헤어짐이었습니

다. 하지만 헤어질 것이라 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정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어짐 뒤에 서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시 만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 015B [이젠 안녕]

우리 처음 만나고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 놓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 음악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 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 어느 차가웁던 겨울 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랜 이젠 /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 이제는 우리가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 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 어느 차가웁던 겨울 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랜 이젠 /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송정원 단원

現 생일날이 제삿날
現 잿색 공주님 하인
現 인물화의 명인
現 필리핀팀 머슴 담당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아빠! 의주야. 이 곳에 온지 어언 네 달이 넘어가는데 어째 딸년이 돼갔고 연락도 제대로 안하고.. 참 못됐지? 그래서 좀 느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빠를 깜짝 놀래켜 주는 건 어떨까 했어. (참고로 서울말 쓰는 건 아빠가 이해해야 해, 그래도 보고서니까!)

아빠도 잘 알겠지만 여긴 제한적인 게 참 많은 동네야. 한국처럼 인터넷도 마음껏 쓸 수 없고 따듯한 물도, 전화기도. 그렇지만 뭐랄까, 어느 작가의 말처럼 '항상 어딘가에 출석해야 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해야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 늘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

네 달을 보내면서 나는 내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 그만큼 여유롭기 때문이겠지. 항상 전화할 때면 난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잘 지내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잡생각이 많아지거든. 흠,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은 말이야, 아아악!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때야. 아니 아니지, 소리 지를 힘도 없다. 도대체가 하나도 모르겠거든.

내가 이 곳까지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게, 정말 많이 준비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비눗방울처럼 어느 순간 툭하고 건드리면 사라져 버릴 것 만 같은 느낌이야. 내 마음도 그렇지만 이 곳 필리핀 환경이 꼭 그렇거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말이야. 또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무수한 것들이 그래.

그래 물론 좋은 경험과 실험이 되겠지. 여지껏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도미노처럼 깨지는 것들, 내 힘으로도 의지로도 안되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이 내겐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글썄, 처음이라기 보단 내가 이 곳에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느끼는 것들이 아닐까도 싶어.

나는 지금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 어떤 고민에 대해서 쉽게 판단 할 수 없거나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지쳐있는 나를 보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만약 내가 라온아띠 활동이 아니라 다른 일이나 집 구석에서 나뉠굴고 있었다면 과연 쓸 데 없을 정도로 잡다한 생각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덕분에 나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고.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또 다시 '항상 어딘가에 출석해야 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해야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 늘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하겠지. 그치만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임할 거란 건 분명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을 스스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걸 아니까, 이젠 무작정 싫다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지 않으려고.

아빠가 예전에 가르쳐 준 노래가 생각난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하는 노래 있잖아. 앞으로 남은 한 달은 이 노랫말처럼 살아보려고 해. 머리로만 다름을 인정했던 것들을 눈으로도, 귀로도, 내 오감으로 순수하게 인정하는 법. 물론 어렵겠지만 말이야!

마지막으로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안 하게 되는 말, 사랑해!

PS. 페이스 북에 사진 안올린다고 뉘달하지 말아줘.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도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고!

-바보같이 쓴 편지에도 응원을 보내 줄 거란 걸 아는 딸이 사랑하는 아빠에게.

신의주 단원

前 컷언리미티드 후계자
現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現 먹이사슬 최상위 담당
現 따르릉 발전화 왔어요^^



6월을 돌아보며...

새로운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기를 했던 6월.

중간보고를 준비하느라 3월부터의 활동을 쭉 정리하느라 그랬나봅니다. 그래서인가요, 활동을 돌아보면서 하는 건 반성, 반성, 반성 또 반성... 왜 나는 그때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고, 왜 그때 빨리 집에 와버렸고, 왜 더 자발적이지 못했는지,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던 것들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내가 여기 왜왔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차라리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더 열심히 성공적으로 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참 별의 별 일들이 다 일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6월 한 달 안에 적어도 한번 썩은 눈물을 뺀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참 지치는 날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나요?

그런데 왜 저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내가 있어서 울게 된 것 같을까요. 팀이 잘 안 굴러가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전부 다 내 탓 같기도 해서 우울해 지다가, 갑자기 또 생각해 보면 전부 다른 팀원들 탓인 것 같고 왜 우리만 이럴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저의 에너지는 점점 방전돼 갑니다.

'중간'에 하는 보고가 아니었던 중간 보고단이 방문할 때도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비싼 돈 들여 나를 여기까지 보내 주신 분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기분도 들었어요. 그런데 1:1 면담 중 간사님이 해주신 한 마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는 훨씬 잘하고 있고, 힘이 안 나면 힘이 안 나는 대로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괜찮다'는 그 말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출국 전에 나에게 쓴 편지를 이번에 받아봤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다 돌아오기:)

그래요, 난 내가 아직도 잘하고 있는 건진 모르겠습니다. 생각처럼 일이 탁탁 풀리지도 않고,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반성의 채찍질도 좋지만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7월, 그리고 8월의 며칠 동안은 기운내서 실컷 웃어야겠습니다:) 아하하 하하



김시연 단원

前 입방정 김방정 역임
前 셔플댄스 단기 완성반 수료
現 1(she)8세 소녀
現 천상 여자, 그러나 양기 충만



B.Pook Elem. 현지 기부에 관한 보고서 원본

NARRATIVE REPORT ON ADOPT-A-SCHOOL PROGRAM

Introduction

The progress of a nation depends on the kind of education it provides its people. Today, education is not only seen as a pivotal factor in the people's n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t is now seen as the main component of a nation's advancement. The RAONATTI Friends of Asia (Koreans) and the YMCA San Pablo recognizes that education is important for every Filipino, supporting the belief that education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many students of Bagong Pook Elementary . The Raonatti and the YMCA's social responsibility efforts focus in education as a key to alleviate poverty. From the heart of the RAONATTI Friends of Asia, Ansan Suksu Library and YMCA San Pablo donated storybooks and informative books for the Students of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Acceptance of DONATIONS took place at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on June 22, 2012. The program started at 8:00 am and Mrs. Elaine E. Pacis, a Grade VI-Adviser, lead the prayer. The principal of the school, Mrs. Yolanda Q. Alcantara, said her opening remarks with a grateful expression for the RaonAtti Friends of Asia(Koreans)and Ansan Suksu Library through the YMCA San Pablo City Chapter for choosing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This was followed by the message of Mrs. Kristy D. Sumague , the executive director of YMCA San Pablo City chapter. Then, the most awaited part of the program, the acceptance of the Donations. Mrs. Yolanda Q. Alcantara, (School Principal) Mrs. Roselyn R. Alcantara (PTA President), Mrs. Lulu M. Cornista (SGC President), Councilor Milfred Alcos (Barangay Councilor for Education) received the dollar cash in an envelop from the Executive officials of YMCA Philippines and Korea. All the teachers and students, and some parents of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were very happy and grateful for those donations. The cash will be used to put up a look-a-like little Ansan Suksu Library in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Mrs. Lulu Cornista, SGC President, gave the closing remark.

It was a successful program and we extend our gratitude to everyone participated.